

위기가구 대상 긴급복지지원 강화 위한 우수사례 공유

- 2024년 긴급복지지원사업 성과공유대회 개최(11.21.)-
- 긴급복지지원 우수사례 시상 및 발표, 지자체 담당자 간담회 개최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원장 배금주)은 11월 21일(목) 오후 1시 용산 드래곤시티 호텔에서 「2024년 긴급복지지원사업 성과공유대회」를 개최하였다.

긴급복지지원사업은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인하여 도움이 필요한 가구에 신속히 생계, 의료, 주거 등을 지원하기 위해 2006년부터 추진 중이다.

이번 행사는 지난 9월 실시된 공모전을 통해 발굴한 긴급복지지원 우수사례를 전국으로 전파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 담당자 간담회를 개최하여 긴급복지지원제도 운영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성과공유대회 1부에서는 우수사례 공모전 시상식을 진행하고 우수사례 수상작 발표가 이루어졌다. 대상 1편, 최우수상 1편, 우수상 2편, 장려상 4편 등 총 8편이 선정되었으며 대상에 보건복지부 장관상, 나머지 상에 한국보건복지인재개발원장상이 수여되었다.

수상작은 사례집으로 엮어 전국 17개 시·도에 배포하고, 지역사회 내 긴급복지지원사업 담당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 긴급복지지원사업 우수사례 공모전 수상작 요약 >

○ (대상: 대구 박현경) “이제 빛나는 바다로 가자...인생의 경로를 재탐색해준 긴급복지지원”

세 아이를 키우는 A씨는 어려워진 남편 사업을 위해 대출을 받았습니다. 남편 사업은 결국 폐업하고 살던 집은 경매로 넘어가면서 신용불량자가 되었고 이혼으로 절망에 빠졌습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으로 생활고는 해결하고, 기운을 차렸습니다. 바리스타 자격증을 취득하고 법원판결로 채무자 면책을 받기도 하면서 인생의 새로운 경로를 걷게 되었습니다. 빛날 줄만 알았던 바다에서 풍량을 만나 다시 길을 잃어 돌아와도 괜찮습니다.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는 긴급복지가 있으니까요.

○ (최우수상: 경기 정진영) “함께하니 해피엔딩...민관협력에 연결고리가 된 긴급복지지원”

뇌전증을 앓는 40세 B씨와 척추장애가 있는 69세 C씨가 사는 집에 불이 났습니다. C씨가 입원하여 장애가 있는 아들을 돌볼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 사실을 신고받아 현장을 방문하여 긴급 생계 지원을 실시했습니다. 상담을 통해 지원금 외에도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보건소 등 여러 기관이 협력하여 화재 잔해물 처리, 건강 확인, 음식 제공 등을 받았습니다. ‘힘들어서 죽으려고 했는데 이제 나쁜 생각 안해요’라고 말하는 C씨는 B씨와 치료를 받으며 일상생활을 회복 하였습니다. 긴급복지지원은 **지역사회의 연결고리**가 되어 **한 가구에게 희망**을 주고 **다시 살 수 있는 힘**을 더해주었습니다.

2부에서는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에서 ‘긴급복지지원사업 추진현황과 운영방향’을 설명하고, 긴급복지지원 지자체 담당자 간담회를 열어 제도 개선을 위한 발전 방향을 논의한 후 약자복지와 사회적 위험에 대한 특강을 진행하였다.

보건복지부 이상원 복지정책관은 “도움이 필요한 위기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이 필요하다”라며, “긴급복지 우수사례를 전국으로 전파하고 앞으로도 위기가구의 두터운 지원을 위해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1. 2024년 긴급복지지원사업 성과 공유대회 개요

2. 2024년 긴급복지지원사업 우수사례 공모전 수상작

담당 부서 <총괄>	복지정책관 기초생활보장과	책임자	과 장	장재원	(044-202-3051)
		담당자	사무관	강예나	(044-202-3058)
담당 부서	한국보건복지인재원 복지행정교육부	책임자	부 장	최도환	(043-710-9241)
		담당자	대 리	김경전	(043-710-9158)

□ 개요

- (목적) '24년 긴급복지지원사업 우수사례 공모전 수상작 시상*, 발표하고 현장 의견 수렴을 위한 지자체 담당자 간담회 개최

* (공모) 대상 1편, 최우수상 1편, 우수상 2편, 장려상 4편 총 8편

- (일정/장소) '24.11.21(목) 13:00~18:00, 용산 드래곤시티 호텔

* 서울시 용산구 청파로 20길 95

- (참석자) 보건복지부,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지자체 담당자 등 30명

□ 세부 일정

일정		주요내용	비고
12:30~13:00	30'	• 등 록	-
[제1부] 개회 및 시상식, 우수사례 발표			
13:00~13:05	5'	• 개 회	사회자
13:05~13:10	5'	• 인사말씀	한국보건복지인재원 본부장
13:10~13:15	5'	• 축사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장
13:15~13:25	10'	• 2024년 긴급복지 우수사례 공모전 시상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장
13:25~13:50	35'	• 2024년 우수사례 수상작 발표	수상작 3편
13:50~14:00	10'	• 휴식	-
[제2부] 지자체 담당자 간담회			
14:10~16:00	110'	• 약자복지와 사회적 위험의 재검토 특강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구인회 교수
16:00~16:50	50'	• 긴급복지지원사업 추진현황 및 운영방향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16:50~17:50	60'	• 긴급복지지원제도 발전방안 논의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17:50~18:00	10'	• 폐회	-

구분	주요 내용
대상	“긴급복지지원제도가 인생의 경로를 재탐색합니다.” 아이 셋에 남편 사업을 위해 대출을 받았지만 폐업 후 신용불량자가 되고 이혼으로 절망에 빠졌을 때, 긴급복지 생계지원으로 기운을 차리고 바리스타 자격증을 취득하는 등 인생의 경로를 재탐색한 내용
최우수상	“민관협력에 연결고리가 되어준 소중한 긴급복지지원” 뇌전증을 앓는 성인 아들과 척추장애가 있는 노인이 사는 집에 화재가 발생하자, 긴급생계지원으로 도움을 받고, 그 계기로 노인복지관, 장애인 종합복지관, 보건소 등으로 연계하여 다양한 지원을 받은 내용
우수상	“고립에서 희망으로, 이 씨 할아버지의 변화 이야기” 전기가 끊긴 폐건물에서 홀로 살고 있는 노인을 발견하여 긴급복지 생계지원 후 연대를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탈출한 이야기를 담은 내용
우수상	“작은 관심이 한 사람의 세상을 변화시킨다!” 무심코 지나칠 수 있었던 지원 대상자를 발견하고 긴급복지 생계지원, 의료지원을 통해 삶의 변화 의지가 생길 수 있도록 도움을 준 내용
장려상	“걱정마요.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보호자 확인이 되지 않은 환자가 퇴원한 후 주택 퇴거로 인하여 거리로 내몰릴 위기에 처해 있자 긴급복지 주거지원으로 임시 보금 자리를 마련하고 임대주택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게 된 내용
장려상	“당연한줄 알았던 폭력과 공포에서 벗어나 일반인과 같이 살기 위해 결심하기까지” 남편의 가정폭력으로 힘든 날을 버티며 살고 있던 6인가구에게 긴급복지 생계지원을 하고 이후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로 선정되어 일상 생활지원, 정신건강 지원을 받아 안정적인 가정환경을 조성한 내용
장려상	“더 이상 쓰레기통을 찾아다니지 않아도 돼요” 주민등록번호가 말소되고 쓰레기통의 음식으로 끼니를 해결하던 노숙인을 이웃이 발견하여 신고하고 긴급복지 생계지원으로 긴급하게 도움을 준 후 기초생활보장제도, 다양한 복지서비스로 연계한 내용
장려상	“긴급지원 처방의 기적: 유00 씨의 삶을 재건축하다” 사업실패, 교통사고 등으로 생활고를 겪고 있던 4인 가구에게 긴급복지 생계지원을 하고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로 선정하여 다양한 지원 후, 아버지가 공무원 시험을 합격하여 삶이 재건축된 내용